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 입주기업 간담회

전북TP-정읍시, 투자 · 회계 · 스피치 1:1 맞춤형 성장지원 본격화

전북테크노파크는 26일 정읍시와 공동으로 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학수 정읍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 투자, 피칭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현직 VC 대표,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피칭 코치 등이 참여해 1:1 상담을 진행했으며 입주기업들은 후속 미팅 및 전략 컨설팅 등 연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는 지난 바이오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한 이후 바이오 산업을 더욱 내실있게 육성하고 바이오와 관련된 대형 사업 유치를 준비하고자 올해 1월 정읍에 전북테크노파크 산하 바이오진흥센터TF를 개소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작년부터 전북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와 함께 '첨단바이오 R&D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한 지자체에 소재한 바이오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정읍에 소재한 기업은 지난해부터 11개 기업에 20억원의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 고도화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한 4월에는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3년간 18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비임상 시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도내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고 도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북만의 투자 인센티브 전략을 갖추게 되었으며, 정읍에 소재한 3대 국책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바이오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도 신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9년까지 총사업비 365억원(국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정읍 신정동 연구개발특구 내 청년 중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창업기획사, 펀드운용사 등과 협력해 8개 스타트업이 입주한 코워킹스페이스를 공동으로 운영 중이며 AC · VC 연계 투자 및 전략적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보육실,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체계'도 함께 운영 중에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정읍 첨단산업단지 내 정읍바이오진흥센터를 개소 이후 바이오 국가사업 발굴과 기술사업화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역의 기술역량과 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정읍이 바이오 창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25일 고창군 소재 웰파크호텔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신협 전북본부, 고창 웰파크호텔과 MOU 체결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가 지난 25일 고창군 소재 웰파크호텔(CEO 이종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생활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은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전북신협은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추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양 기관이 협약을 추진했다.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고창군에서 임직원 연수, 주요 회의 행사 등의 워크숍, 조합원 관광 등을 진행하며 고창군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웰파크호텔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신협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설전반을 협약된 요금에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를 활용한 행사장소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에 협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창군은 세계유산도시로서 고인돌 유적, 모양성 등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복분자, 수박, 장어 등이 유명하다. 또한 벚꽃 축제, 청보리밭 축제, 고창모양성제 등 축제가 4월부터 11월까지 있으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대규모 핑크뮬리 꽃밭 또한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고창 청보리밭은 '폭싹 속았수다', '도깨비' 등의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돼, 관광객들에게 대표적인 명소로 알려져있다.

/오상근 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은행, VIP고객 대상 '제3회 JB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6일 본점 '더 퍼스트 라운지(THE FIRST LOUNGE)' 지하 1층에서 '제3회 JB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은행 VIP 고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THE FIRST LOUNGE의 프라이빗 공간에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 이슈를 주제로 김세종 세무사(에스제이택스)와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금융 전문 세무사와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세무 솔루션 등 특별한 자산관리 경험을 제공하며 고객 참여와 집중도를 높였다.

김세종 세무사는 실제사례를 통해 고객들의 세무 및 자산관리 문제를 다루며 복잡한 세무 이슈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PB센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강의 형식을 넘어, 고객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자산관리 요구를 반영한 고객 맞춤형 세미나를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LX, SOC사업 활성화 위한 국토 포럼 개최

신속한 토지 보상 · 체계적인 공정관리 협력방안 논의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 LX공사)가 SOC사업 기관과 신규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26일 LX대전지사에서 '2025년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포럼'을 개최했다.

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SOC사업 전반에 걸친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지적 기반의 신규 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개최된 포럼에서 LX공사는 보상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용지도 활용방안 및 공공인프라 플랫폼 시연, 드론영상 활용 기본조사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효율적인 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협력방안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사업 협력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사업 등 보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제했다.

특히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하반기 사업 추진 전략 및 협업 방향을 공유 및 신속한 토지 보상과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각종 협력방안도 논의되었다.

포럼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SOC사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만드는 것에 뜻을 모았다.

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정부의 SOC사업 예산 증액 기조에 맞춰 공공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국토 포럼이 기관 간 협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협업을 통해 공공사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개공-전북연구원 청년 주거 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와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6일 공사 회의실에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상호 의견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전북개발공사는 추진 중인 '전북형 반할주택'과 연계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한 청년 맞춤형 사업발굴 내용을 소개했고, 전북연구원은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도내 청년층의 주거형태 · 경제활동 · 결혼 · 출산 등 전반적인 실태를 고려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관별 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청년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한 구체화와 더불어, 청년층의 인식 변화 및 요구를 반영한 체감형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결혼 · 출산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착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구성한 "청년 유출 · 입 대응 TF팀"에서 주거분야 정책발굴 지원을 맡고 있기도 한 양 기관은 청년 중심의 주거정책 발굴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2025 찾아가는 사회공헌활동'

탄소산업진흥원 임직원, 밑반찬 나눔 봉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최근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2025 찾아가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 상생을 통한 나눔 실천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전북 도내 18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김제 지역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금융,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은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지원하고자 '사랑의 반찬 나눔'을 진행했으며, 준비된 반찬을 직접 포장하고 나눠드리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2024년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년 연속으로 '찾아가는 사회공헌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유경민 원장 직무대행은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해 나감으로써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